

진흥회 활동

'96 민·관 통상 전략 포럼 개최



본회는(회장 구자학) 지난 5월 3일~4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온양파크호텔에서 「'96 민·관 합동 통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통산부 박인구 전자기기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찬현 연구위원,

삼성전자 최군식 이사 등 관·산·연 30여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태열 외무부 통상2과장은 「한·미 통상마찰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잇단 수입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에 미흡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의 對美무역수지 적자 등에 비추어 미국의 통상압력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갖는 등 서로 상반된 통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우방인 미국과의 통상 및 협력증대를 위해서는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일방적 압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과장은 「전체교역량중 대미교역량의 비중이 지난 93년 21.7%, 94년 21.4%, 지난해 21% 등 해마다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이라면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전환과 함께 美 무역대표부(USTR)일변도의 통상협의를 탈피, 백악관·국무부 등의 채널로 점차 다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대천 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장은 「EU의 통상정책 및 한·EU통상관계」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EU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제도를 실시, 에너지효율등급 및 에너지소비량·소음발생량·물소비량 등에 대한 제조업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기술장벽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과장은 「이같은 EU측의 움직임에 대응키 위해 정부는 반도체·정보통신기기 등 주요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업계간 산업협력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7월경에는 EU국가별 산업기술협력위가 서울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업계에서는 LG전자의 이찬호상무가 「기업통상 대응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들의 통상규제가 다자간협상에서 타결된 국제규범에 근거하고 있어 민간기업이 대응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제규범제정 초기단계부터 정부가 협상에 참여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는 특히 「통상문제가 다양화·전문화되면서 통상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통상전문가의 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 협의회는 작년 하반기에 진공청소기의 금속연장관 등 15개 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를 추진해온 결과 현재까지 칼라TV의 전해콘덴서 등 13개 부품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이 가운데 진공청소기의 먼지 봉투 등 7개 부품의 공용화를 이룸으로써 약 8억원의 원가절감과 5% 정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동 협의회는 이날 3차회의를 개최하고 '95년 진행사업을 조속히 완료함과 동시에 금년에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자렌지 등 5개 품목의 18개 부품에 대해 표준화 및 공용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가전3사, 올에 18개부품 표준화, 공용화에 합의

본회는(회장 : 구자학)는 지난 4월 17일 팔레스호텔에서 남귀현 대우전자 부사장 등 가전3사 부사장단 회의에서 가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품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올해 C-TV의 텍트 스위치 등 18개 부품을 표준화하고 이를 공용화하기로 했다.

가전3사는 이미 작년 6월 가전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수입부품의 국산화 및 원가절감 그리고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본회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전3사의 부사장과 통상산업부 담당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5개 품목별로 추진반을 구성, 운영해 온 바 있다.

가전업계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과제

구 분	'95년 과제	'95년 추진상황	'96년 과제
합 계	15개부품	표준화 : 13개부품 공용화 : 7개부품	18개 부품
C - TV	전해 콘덴서 등 3개 부품	표준화 : 3개부품 공용화 : 1개부품	텍트스위치 등 3개 부품
청 소 기	금속연장관 등 4개부품	표준화 : 4개부품 공용화 : 3개부품	전원플러그 등 3개 부품
냉 장 고	램프 및 소켓 등 3개부품	표준화 : 3개부품 공용화 : 1개부품	릴레이 등 3개 부품
전 자 렌 지	서모스타트 등 3개부품	표준화 : 2개부품 공용화 : 2개부품	마이크로스위치 등 3개부품
세 탁 기	배수동기모터 등 2개부품	표준화 : 1개부품	탈수타이머 등 6개부품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개발 사업지침 미련시행

본회는 지난 4월 24일 경쟁력 강화 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은 80% 이내까지 각각 지원하되 과제수행평가가 중단 또는 실패로 나타날 경우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키로 하는 동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안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대기업에는 개발비의 50%까지, 중소기업에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고 30대 재벌그룹 계열사와 자산 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자산총액 800억이하 기업과 연구조합은 각각 중소기업군으로 분류해 운용키로 했다.

또 계약기간은 신규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당일 1일을 기산점으로 했고 개발기간의 연장신청은 6개월이내 1회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또한 △협약의 해약 △수행과제의 중단 또는 실패 △실시계약 미체결 등에 대해서는 5년동안 신규사업참여를 제한하여 △계약해약 △평가중단 및 실패 △개발사업비 사용실적 허위보고 등에 대해서는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행기업 선정기준으로 △과제의 중요성과 △수행능력 △과제의 목표, 내용의 수행방법 △사업화 가능성 및 기술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선정하며 수행기업의 자발적인 포기 등을 고려해 예비수행기업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본회는 이와 함께 업무효율을 위해 공급기반강화 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협의회는 지침서 제·개정, 개발과제 및 수행기업의 선정, 개발사업비의 규모 등을 심의해 의결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2개부문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선 다변화 단계적 해제 건의

본회(회장 구자학)는 최근 정부의 수입선다변화 조기해제방침과 관련, 이같은 해제조치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계속적인 시행과 수입선다변화품목의 단계적인 해제계획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난 5월 7일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본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일본은 이미 태국·중국·말레이시아 등에 현지공장을 확보, 가전제품의 70~80%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일본전자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이같이 건의했다.

또 높은 일체선호도와 유통시장 개방이 이번 조치와 맞물릴 경우 우리 내수시장을 일본에 고스란히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완제품 국내시장 유입시 일본기술의 對韓이전 불가 △부품공급업체의 도산 속출 △가전제품국제경쟁력 악화 등의 파고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전자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원산지판정 기준을 현행대로 부가가치기준과 주요부품 판정방식으로 해야하며 수입선다변화품목해제도 당초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96 전자공업통계 담당자 간담회

본회는 96년도 통계담당자 간담회를 지난 5월 6일(구미), 8일(마산), 10일(부산) 14일(서울, 경기)등 4일동안 지방과 수도권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번 통계 간담회는 정부지정통계 기관으로서 매월 전자공업통계를 조사하여 정부정책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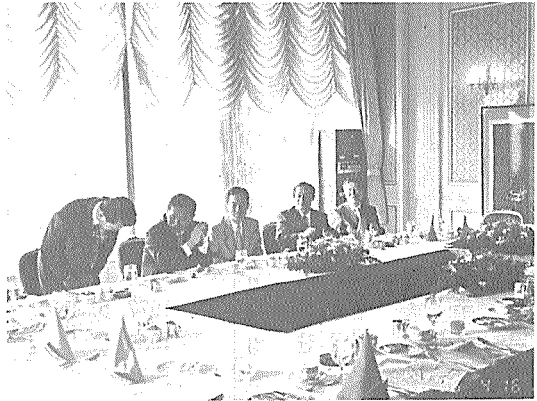
업계의 경영계획 수립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 제공하고 있는데 따른 업계 통계담당자의 통계조사표 작성요령을 숙지시키고 조사목적 등을 산업통계의 중요성에서 불태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통계조사 자료제출 우수업체의 담당자 표창을 통해 격려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우수통계 담당자 표창 명단이다.

제18회 통계간담회 표창대상자 명단

경 인 전 자 (주) 기	획	과 직	원 박 미 선
내 외 반 도 체 (주) 기	획	팀 직	원 김 동 영
(주) 기 라 전 자 관	리	과 대	리 홍 정 기
동 유 전 자 (주) 총	무	부 부	장 김 정 남
한국시그네텍스(주) 업	무	과 직	원 강 진 속
한 국 통 신 (주) 관	리	부 계	장 고 강 진
삼영전자공업(주) 총	무	과 계	장 윤 재 명
삼협전자공업(주) 총	무	과 직	원 이 미 영
서진전자공업(주) 영	업	무 과	장 라 기 원
(주)신광하이테크Q · C	· C	과 직	원 어 인 수
아 남 산 업 (주) 수	출 입	부 직	원 김 경 회
삼 성 전 자 (주) 경	영 지	원 팀	원 오 현 호
한 국 신 영 (주) 영	업 부	주 임	시 남 준
(주) 신 성 기 업 총	무	과 직	원 신 용 학
대한중천산업(주) 생	산 관	리 과	직 원 안 갑 미
한 국 TT(주) 생	산 기	획 과	직 원 손 행 진
세 진 전 자 (주) 업	무	과 직	원 최 경 순
동아전기공업(주) 총	무	부 직	원 김 수 진
중앙정밀공업사 총	무	과 계	장 이 종 회
한 국 성 산 (주) 총	무	과 직	원 정 미 숙

기지국 신설여건 개선, CATV컨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 추진, CDMA 이동전화 단말기 등의 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국산개발 촉진 등 협의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창립20주년 가족한마당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25일 창립20주년 기념 진흥가족 한마당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LG생활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이상원 부회장 등 전직원이 참석, 체력단력 및 일체감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임직원 가족 참여로 인한 가족 친모도 크게 도모했다.

이날 경기로는 축구, 발야구, 릴레이, 줄다리기, 팀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게임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LG반도체,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두산전자 등 회원사 여러분의 협찬에 감사드립니다.

통신산업협의회 정기회의

본회의 통신산업협의회는 지난 4월 16일 팔레스호텔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통신산업 현황과 당면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LG정보통신 박정건 상무 등 8개사 12명이 참석했는데 주요 현안인 이동통신